

광주 남구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주먹구구'

2018년부터 청사 1층서 상시 운영
작년에서야 현장 판매...이전 실적
업체 공개모집 불구 관심 저조 지속
2019·2020·2023년 '전시 되풀이'



광주 남구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를 위해 2018년 2월 '사회적경제 홍보관'을 개소해 수년간 운영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사진은 3일 남구청사 1층 한편에 마련된 홍보관의 모습. /서형우기자

광주 남구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신장 등을 위해 수년간 사회적경제 홍보관을 운영해왔으나, 주먹구구식에 그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남구에 따르면 2018년 2월 청사 1층 한편에 사회적경제 홍보관을 조성, 문을 열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남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 상승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홍보관을 마련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해 홍보관 입주 기업은 총 23곳이었는데, 이중 6곳은 2025년 10월에 신규로 들어왔고 나머지 17곳은 2024년 10월부터 입점해 있었다.

같은 기간 방문객은 472명이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이 245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두 명도 찾지 않은 셈이다.

홍보관 판매 실적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판매 금액은 총 6만8천원으로 집계됐으나, 어느 기업에서 어떤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는 파악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를 제외하곤 판매 수익 등 홍보관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 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방문객 역시 2024년 301명으로 집계됐으나 그 이전 자료는 정확하지 않다.

입주 현황에선 사회적경제기업이 홍보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홍보관 입주 기간은 시기별로 조금씩 달랐으나,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참여 기업이 공개 모집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다.

2018년 2월 개소 당시에는 21곳의 기업이 입주했다. 같은 해 9월 '새 시즌'이 시작됐을 당시 참여 기업은 24곳으로 늘었으나 신규 입주한 곳은 6곳뿐이었다.

2021년 6월과 2022년 9월, 2024년 10월, 2025년 10월 모집 당시에도 기존 기업이 또다시 참여하는 형태

가 반복됐는데, 2019·2020·2023년의 경우 신규 희망 신청 자체가 없어 종전의 전시가 되풀이됐다.

때문에 현재까지 사회적경제 홍보관 입주 기업은 총 122개소였지만, 중복을 제외하면 77개소에 그친다.

지난달 기준 남구 관내에 ▲협동조합 143개소 ▲사회적협동조합 44개소 ▲사회적기업 25개소 ▲마을기업 16개소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 ▲자활기업 4개소 등 총 236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 것에 비해보면 약 8년 동안 3분의 1 정도나 홍보관을 이용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개소 초기부터 상당 기간은 제품 홍보 중심으로만 운영됐다"며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부터 실제 판매를 병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시 가능 공간이 남았을 때는 이전에 참여했던 기업들 위주로 입점을 권고해 왔다"며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업체 등록 등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효과도 체감되는 방안을 발굴해서 홍보관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형우기자

대마농축액 밀수입 투약·판매 일당 '철폐'

'밀통' 등 위장...광주세관, 4명 송치·1명 수배

특송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대마농축액을 밀수입해 투약·판매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3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국제 특송화물로 대마 카트리지와 농축액을 밀수입해 투약·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1·여)씨와 B(31)씨를 광주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

공범 C(28·여)씨와 D(45·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농축액을 공급한 E(31)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대마 카트리지를 들여오는 등 10차례에 걸쳐 대마류를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필통에 담긴 대마 카트리지를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유사 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캐나다발 특송화물의 수취지인 전주는 물론 과거 인천에서도 마약류 밀수입이 이뤄진 정황을 파악한 후 동시 압수수색을 통해 전주와 인천에서 각각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필통 등 필기구와 함께 필통에 대마 카트리지를 넣거나 연고, 당뇨병 치료제 케이스 등에 대마 농축액을 옮겨 담아 지인을 통해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우범여행자 및 우범화물에 대한 통관내역 확장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신종 마약 '러쉬' 투약 불법 체류자 구속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광주 북부경찰, 유통 경로 추적

신종 마약 '러쉬(Rush)'를 투약한 30대 불법 체류자가 구속됐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10시께 충북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 1병(10ml)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북 일대에서

불상의 인물로부터 해당 마약을 구입, 택배로 받은 뒤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쉬'는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임시마약류로 1군 마약류에 해당한다.

경찰은 정보를 입수해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A씨를 검거했다.

불법체류 신분인 A씨는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의 마약 유통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윤찬용기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절차 착수하라"

국민추진위 성명...특위 등 촉구

5·18정신헌법전문수룩국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 논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애가 해소됐다"며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저항'으로 판사됐

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적 평가도 확립됐다"며 "그럼에도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역사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헌정당임이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명시한 개헌안 조속 발의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추진을 위한 일정·절차 제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됐으며 투표 연령은 18세로 하향했다. /이연상기자

전남경찰, 대불산단 이주노동자 사망 수사 착수

경찰과 노동당국이 최근 영암 대불산단 내에서 잇따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수사 등 조치에 나섰다.

3일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43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한 조선소 공장에서 1t 블록에 깔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A(30대)씨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과 안전 수칙 준수 의무가 있는 공장 관계자 간 인과 관계를 따져보고 있

다. 단, 아직까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달 28일 대불산단 내 모택동 부품 제조업체에서 아르곤 기스에 질식사 사망한 베트남인 B(30대)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도 입건자를 특정할 정도로 혐의가 명백한 이들은 아직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노동 당국도 A씨와 B씨가 숨진 사업장에 각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안재영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